

AUTHOR 한철하

TITLE Calvin의 삼위일체론

IN 성경과 신학

vol.17 (April, 1995): 162-175

Calvin의 三位一體論

(롬 1:18, 요 1:1, 히 1:4, 창 1,
잠 8:23~31, 벧전 1:11~12, 요 17:5)

한 철 하

(Ph.D., 아신대, 조직신학)

I. Calvin의 三位一體論의 骨格

Calvin의 三位一體論의 특징은 그의 모든 論議에 있어서 “唯一하신 참 하나님”(요 17:3)의 中心性을 잃지 않고, 그 한 분 하나님의 創造와 救援의 役事하심을 三位에 있어서 행하신다는 眞理를 애매함 없이 가르치고 있는 점이다. 이 重大한 眞理의 엄청난 重大性을 看過한 채 Calvin의 神學이(Wendel 같은 이는) Originality가 없다고 評을 하는데, “唯一하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서 그의 三位로서 役事하시는 創造와 救援의 役事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가의 問題이지, 무슨 Originality를 찾아서 인간의 헛된 思索의 잘못된 자랑거리를 찾으려 하는지 理解할 수가 없다.

Calvin은 그의 三位一體論을 강요 1권 13장에서 要約·開陳하고 있는데, 역시 ‘唯一하신 하나님’에 대한 信仰에서 出發하고 있다.

The Scriptural teaching concerning God's infinite and spiritual essence ought to be enough, not only to banish popular delusions, but also to refute the subtleties of secular philosophy(I. 13. 1).

여기서 Calvin이 ‘essence’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을 哲學的 概念을 말한다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Calvin에 있어서 ‘essence’는 ‘하나님 자신’(God himself)을 意味한다. 聖經이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記錄하는 ‘唯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 하나님께서 ‘靈’으로 계심과 모든 被造物의 有限性을 超越하여 계시어 無限性을 지니는 분임으로 Calvin은 이 두 가지 屬性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품는 妄想(stupid imagining)이나 인간이 哲學的 思索(the subtleties of secular philosophy)을 排除한다.

이와 같은 ‘唯一하신 하나님’은 ‘三位’에 있어서 자신을 啓示하시나 그는 어디까지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For he so proclaims himself the sole God as to offer himself to be contemplated clearly in three persons. ... Again, lest anyone imagine that God is threefold, or think God's simple essence to be torn into three persons, we must here seek a short and easy definition to free us from all error(I. 13. 2).

한 분 하나님께서 三位에 있어서 나타나시나 그 三位께서 한 분 하나님의 本體의 ‘形狀’(Χαρακτήρ της)이라고 한다. 즉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의 形狀이라고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榮光의 光彩’(ἀπαύλασμα

της δόξης αὐτου)라고 함으로써 ‘아들’이 ‘아버지’의 榮光을 光彩로써 나타내고 있음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聖父와 聖子の 位格이 區別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hypostasis를 essentia와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하나님의 本質은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되고 ‘단순하고 不可分離하다’(God’s essence is simple and undivided),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包含된다(He contains all in himself), 즉 三位께서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다 包含된다는 뜻이다(I. 13. 2).

요 1:1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과 ‘아버지’의 位格의 區別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位格(person) 등이 한 분 하나님의 本質(essence)에 있어서 하나가 됨을 말한다(I. 13. 6). 이와 같이 ‘하나’라 할 때에는, essentia, 즉 ‘한 분 하나님’을 理解하여야 하고, ‘셋’이라 할 때에는 ‘三位’(three persons)를 理解하여야 한다(...when we hear ‘one’ we ought to understand ‘unity of substance’; when we hear ‘three in one essence,’ the persons in this trinity are meant. I. 13. 5).

이와 같이하여 Calvin은 단번에 ‘한 분 하나님’께서 ‘三位’로 계시나, 그 ‘三位’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形而上學的 眞理를 開陳한다. Arius는 ‘三位’께서 ‘한 분 하나님’(ὁμοούσιος)으로 계심을 否認하는 異端의 代表이고, Sabellius는 아버지와 아들과 聖靈의 三位의 個體性(three hypostasis)를 否認하는 異端의 代表이다(I. 13. 4, 5).

여기서 한 가지 注目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essence’로서 三位를 統一하시는 분으로 계시나 三位 중에 ‘아버지’께서 언제나 ‘하나님’과 同一하신 분으로 계심으로서 남은 二位, 즉 ‘아들’과 ‘聖靈’을 또한 통일하신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三位께서 각각 特色을 가지시고, 또한 세 분

사이에 어떤 秩序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Calvin은 뒤에서 더 分明히 하고 있다.

II. 아들과 聖靈에 있어서의 三位一體 眞理의 確認

Calvin은 이와 같이 그의 三位一體論 初頭에서 그 基本 骨格을 開陳한 후에 ‘아들’과 ‘聖靈’께서 ‘神性’(divinitas)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 自身’(essentia)이심을 分明히 함으로 우리의 救援과 不可分離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 준다. 結論적으로 말하여 ‘한 분 하나님’께서 ‘三位’로 役事하시지 않고는 우리를 救援하시는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三位께서 그 ‘唯一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三位의 救援하심이 永遠하신 ‘참 하나님’의 救援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인간이 案出해 낸 어떤 救援論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 部分(I. 13. 7~15)에 있어서 특히 Calvin의 基督論은 철두철미 중심의 基督論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現代 西洋神學이 하나같이 historical Jesus에서 出發하는 것과는 극히 對照的이다. 이 점에 있어서 바르트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소위 ‘말씀’ 自體에서 出發한다고 하면서도 形而上學的 眞理를 出發點으로 삼는 일을 열심히 反對하고 있다. 그러나 Calvin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古典時代의 모든 教師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創世 以前에 永世 前부터 ‘참되신 하나님’으로 實在하고 계시었다는 事實과 眞理에 대해서 疑心하는 사람도 없었고,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世上을 創造하실 때에 거기에 계시었고, 또 그가 곧 創造者이시었다는 것은 하나의 常識에 속하였다. Calvin은 벤전 1:10~11; 벤 후 1:21; 창 1; 히 1:2~3; 특히 잠 8:22ff 뿐만 아니라, 外經 Ecclesiasticus 24:14도 인용하면서 ‘지혜’가 萬世 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었고, 萬物の 創造와 하나님을 모든 하시는 일에 참여하시었음을 말하고 있다(I. 13. 7). 물론 요 1:1~3과 특히 요 12:5에 “아버지여, 創世 以前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榮華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당신의 아들을 榮華롭게 하시옵소서” 하시는 아들의 기도도 인용한다(I. 13. 8).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永遠히 先在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고, 곧 ‘하나님 自身’(God himself)(I. 13. 7, 8)이었다는 眞理에 대한 Calvin의 論證을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그는 그 같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舊約聖經에서 證據가 되었고, 그가 곧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분 이시었고(I. 13. 9~10),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전 10:4에서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舊約 백성의 인도자시었다’고 증거함으로써 ‘말씀’께서 成肉身 以前에 당신이 이루어야 할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Even though the time of humbling had not yet arrived, that eternal Word nevertheless set forth a figure of the office to which he had been destined(I. 13. 10).

新約聖經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神性(divinitas)과 그의 참 本質(his true essence), 즉 그가 곧 ‘唯一하신 참 하나님’ 그분 이시었다는 論證에 있어서도 Calvin은, 또 사도들은 지금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舊約에서 이미 證據된 그 그리스도께서(λόγος σαρκικός) 지금(σασσαρκόμενος) 肉身을 입으시고 나타나시었다고 證據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I. 13. 11). 이 그리스도에 관한 新約聖經의 證據 가운데 특히 注目할 만한 것은 I. 13. 13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能力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自己 自身の 能力’을 나타내시고 계시었다는 말이

다(He showed forth his own power). 이와 같이하여 Calvin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獨自적으로 ‘하나님 自身’이심을 나타내신다. 이에 대해 Calvin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하고 감탄한다.

What wondrous and great thing is this, I ask, that the name of the Son alone is announced to us, when God bade us glory in the knowledge of him alone?(I. 13. 13)

Calvin은 바울이 매 편지 서두에 아버지께로부터만 ‘은혜와 축복’을 빌 뿐만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그와 같은 유익을 얻도록 기도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주시는 모든 하늘의 귀한 것들을 媒介할 뿐만 아니라 아들 自身이 그 모든 것의 부여자시라는 사실을 말하여 준다고 한다(by mutual participation in power the Son himself is the author of them. I. 13. 13).

이와 같은 Calvin의 主張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만 執着하라는 뜻은 아니다. Calvin은 그리스도를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받아야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

This, then, is the true knowledge of Christ, if we receive him as he is offered by the Father : namely, clothed with his gospel. For just as he has been appointed as the goal of our faith [scop s fidei], so we cannot take the right road to him unless the gospel goes before us(III. 2. 6).

이 점에 있어서 Calvin은 철저하게 '하나님' 中心을 떠나지 않도록 경고한다. Nazianzus의 Gregory의 말을 인용하면서,

I cannot think on the one without quickly being encircled by the splendor of the three ; nor can I discern the three without being straightway carried back to the one(I. 13. 17).

여기서 Calvin은 三位의 位格 들에 우리의 생각이 執着되어서 한 분 하나님을 즉시 생각하는 일을 더디 해서는 아니된다고 주의를 환기한다.

Let us not, then, be led to imagine a trinity of persons that keeps our thoughts distracted and does not at once lead them back to that unity(Ibid).

結論적으로, Calvin은 그리스도를 最上の 位格에 까지 높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그것도 어떤 部分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全體'가 그 안에 거하심을 본다(골 2:9).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不可分離의 結合되어 있음을 본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또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주실 수가 있을 것이다(Ⅲ. 17. 2, 6)

나는 여기서 지면상 聖靈의 神性(divinitas)과 그가 곧 '하나님 自身'(unity in essence)이심에 대한 Calvin의 證明(I. 13. 14~15)을 자세히 論하지 않겠다. 다만 하나님께서 創造에 있어서나 救援에 있어서 聖靈을 통하여 役事 하시고, 그 聖靈은 다름 아닌 '하나님 自身'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聖殿 삼으시고 우리 안에

內住 하실 때에 그의 聖靈으로 오시고 그 聖靈은 다름 아닌 하나님 自身인 것이다.

Ⅲ. 한 분 하나님의 三位에 있어서의 生存 樣相

1. 한 분 하나님의 중심성과 삼위로 역사하심.

Calvin의 三位一體 信仰은 '한 분 하나님'께서 中心에 서신다. 聖經全體가 이 하나님 한 분만 가리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三位로 役事하시지 않고서는 創造도 救援도 하시지 않으신다.

2. 삼위의 개별적 특성과 상호관계

그리고 이 三位는 각각 그 固有한 特性을 가지신다. Calv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It is this : to the Father is attributed the beginning of activity, and the fountain and wellspring of all things ; to the Son, wisdom, counsel, and the ordered disposition of all things ; but to the Spirit is assigned the power and efficacy of that activity(I. 13. 18).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을 떠나서 存在하지 않으심으로 아들과 聖靈께서 永遠히 아버지 안에 계신다.

3. 三位의 秩序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三位 사이에 秩序가 있음도 알 수 있다. 아버지

계서는 모든 것의 根源으로서 첫째이시고,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셨고, 마지막으로 聖靈계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發出하여 오신다.

4. 三位의 相互 內住性(perichoresis)

이와 같이 三位 사이에 秩序가 있음을 보나, 이 三位는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三位가 또한 서로서로 하나로 되심을 또한 볼 수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한 聖靈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또한 聖靈계서도 아버지와 同一하신 분이시고, 또한 아들과도 同一하신 분이시다. 이와 같이 各 位에 있어서 하나님의 本質의 全體가 계시며, 또 各 位계서 서로서로 안에 全體로 서 계시며 또 하나를 이루신다.

이와 같이 三位계서 한 분 하나님의 本質로 계시며, 또 서로서로 하나 되시나, 그 各 個體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秩序를 이루시고 계신다. 그리고 더욱 重要的 것은 三位一體 하나님 信仰의 基本的인 한 분 하나님계서 三位로 役事하시고 救援하신다는 사실이다.

5. 單純한 '하나님' 呼稱

그리고 이 三位계서 곧 '하나님·자신'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어떤 特別 指稱없이 부를 때에 그 안에는 '아버지'만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또한 '아들'과 '聖靈'에도 그 '불러 이름'이 해당되는 것이다.

Therefore, whenever the name of God is mentioned without particularization, there are designated no less the Son and the Spirit than the Father(I. 13. 20).

그러나 여기서 三位의 秩序上 아버지계서 始作과 根源으로 계시기 때문에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은 역시 아버지께 固有하게 適用되신다. 이

와 같이 unity of essence를 이름함에서 아들과 聖靈계서 排除될 수는 없다. 'unity of essence,' 즉 '한 분 하나님'에 있어서의 統一은 '아들'에 있어서나 聖靈에 있어서나 언제나 이루어져야 한다.

IV. Calvin의 三位一體論의 普遍性

이와 같은 Calvin의 가르침이 그대로 모든 教會의 가르침이란 사실을 改革教 여러 信仰告白書에 있어서 證明할 수 있으나, 오히려 루터教의 Augsburg 信仰告白書 하나를 例證으로 들고자 한다.

The churches with common consent among us, do teach that the decree of the Nicene Synod concerning the unity of divine essence and of the three persons is true, and without doubt to be believed; to wit, that there is one divine essence which is called and is God, eternal, without body, indivisible [without part] of infinite power, wisdom, goodness, the Creator and Preserver of all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and that yet there are three persons of the same essence and power, who also are coeternal,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Ghost.

(Conf. Aug. Part First, Art. 1)

이 내용을 한 마디로 要約하면 역시 '唯一하신 참 하나님'계서 中心에 서시며,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聖靈계서 coeternal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告白이다.

V. 異端에 對應하는 正統信仰 守護

Calvin은 그의 三位一體論 後半部(13: 21~29)에서 三位一體 信仰에 관련되는 異端들의 공격에 대하여 答辯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개가 唯一神 信仰의 立場에 설 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 이실 수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 하나님 이시라는 信仰은 現代 無神思想이 생겨나기까지 아무도 疑心 不 起 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다 른 하나님 이 계실 수 있는 냐의 문제가 야기될 만하다. 그렇기에 벌써 古 代에 아리우스가 아들 을 被造物의 水準에서 理解함으로써 소위 '從屬說'(subordinationism)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에 對하여 Calvin이나 正統 教父들은 다 一致해서 唯一하시고 참된 한 분 하나님 에 對한 信仰을 堅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永遠한 하나님 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 自身이시라는 信仰을 堅持하였다. 이것을 '한 분 하나님'을 '本質'(Essence)이라고 불렀고, '三位,' 즉 아버지와 아들과 聖靈의 三位를 세 '位格'(Person)이라고 불려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 하나님 에 있어서 곧 三位가 區別되심을 論하였다.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의 根源으로서, 곧 '하나님'과 同一하신 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三位 에 있어서도 아버지 에 있어서 또한 統一됨을 지적한다. 즉 三位 사이에 是 秩序가 있다. 이 秩序는 물론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永遠히 나심 으로 인해서 그 '本質,' 즉 한 분 하나님 이심에 있어서 하나이심을 말한다. 聖靈도 다만 發出(procession)에 있어서 양상을 달리할 뿐,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에 있어서 統一됨을 말한다. Calvin은 이 部分(§ 21~§ 22)을 要約하여 "partly concerning the divine essence of the son and spirit" and "partly concerning the distinction of the persons" (§ 21)라고 요약한다. 즉 第二位와 第三位께서는 'the divine essence'에 있어서 하나이시라는 信仰과 또 各 位가 個體로서 區別되는 사

실 에 對한 것이라고 要約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部分(§ 21~§ 29) 마 지막 結論 짓는 말에 있어서도 同一한 要約을 하고 있다. "It is clear that three persons have subsisted in God from eternity"(§ 29). 이것은 그의 前半部에 있어서 거듭 강조되는 한 분 하나님 께서 三位로 役事하시고 또한 우리를 救援하신다는 內容과 같은 것이다. 이 三位께서 한 분 아버지 하나님 께 다시 歸一 되어 한 분 하나님 께서 永遠히 榮光과 感謝와 讚揚을 받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다(*εις επαυθην τη δοξης αιτος*) (엡 1: 6, 12, 14).

現代에 있어서의 三位一體論에 相關된 異端은 古典時代와는 正反對 現象임을 우리는 본다. 古典時代에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한 분 하나님' 의 實在하심과 唯一의 信仰의 對象이 되심에 對해서는 아무 異見이 없었 다. 모든 教父와 모든 異端들이 그 眞理를 出發點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問題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이라는 또 하나의 하나님 을 생각할 수가 있는가?"의 問題이다. 더욱이 그가 '사람'으로 계시 었던 것도 否定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대개의 異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永遠하신 하나님 의 아들이시었는가, 즉 그가 聖經과 教會가 믿어 오는 '하나님' 그분이신가"의 問題이다.

VI. 現代版 異端에 對應하는 Calvin 三位一體論의 意義

그러나 現代의 異端은 그 反對이다. 現代는 '하나님'을 事實상 믿지 않는 時代이다. 그와 같은 存在者가 實在하신다는 것은 現代의 實證主義의 信仰에 맞지 않는다. 모든 實在은 우리의 感覺의 經驗에 實證의 關 聯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過去에 'working hypothesis'로 세웠던 存在者는 벌써 아무도 믿지 않는다. 反面에 '예수 그리스도'는 歷史의 實在 人物이다. 아무도 그를 否認하지 못한다. 그 '그리스도'에 대

해서 어떤 神學的 意味를 부여한다면, 더욱이 그 神學은, 神學에 立脚한 소위 '基督論'은 당당히 論할 만하다. 그리하여 오늘의 時代를 한 마디로 表現해 본다면 神論의 全的인 非實在化의 時代이고, 反面에 '基督論'의 全盛時代라 하겠다. 즉, '無神論的 基督論'의 時代라 함이 좋겠다.

이와 같은 現代神學의 迷路는 역시 칼 바르트에 있어서 시작되었다 하겠다. 바르트 때까지는 도대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神論을 찾아보기 힘들다. 칸트, 슐라이에르마허, 리츨 등의 조직신학자들을 위시해서 하르낙크, 슈바이처 등의 神學學者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사렛에서 난 한 '歷史의 人物'에 불과하였고, 그들이 내세우는 '神學體系' 속에서 特別한 意義를 지녔던 것이 다를 뿐이지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信仰은 전연 상대할 가치가 없는 잘못된 神話나 '形而上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사실은 어떤 意味에서 이 19세기 神學 속에서 이미 '基督論' 中心의 神學 내지 基督論은 이미 자리 잡아 오고 있었다.

그러나 바르트에 있어서 神論 그 자체에 神學的 技巧을 가하기 시작하여 '基督論 中心'의 神論을 만들어 냈다. 첫째는 그의 '말씀'論 中心의 三位一體의 理解(Revealer, Revealed, Revealedness)에 있어서, 둘째는 傳統的인 absolutum decretum을 排擊하는 그의 基督論 中心의 豫定論 再解釋에 있어서, 셋째로는 마침내 和解論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있어서 '順從하는 하나님,' '聖父 受難'의 하나님을 꾸며냄으로써 앞으로 J. Moltmann에 있어서 나타날 唯一神(Mono theism) 信仰에 대한 猛烈的 攻擊의 基礎 作業을 다하여 놓았다. Moltmann이 傳統의 唯一神 信仰을 否定하고 소위 三位의 fellowship, 또는 相互 self-giving에 있어서의 '一體性'을 꾸며 낸 것은 바르트의 神論의 當然한 歸結이라고 하겠다.

Francois Wendel 같은 Calvin 研究의 專門家도 Calvin이 그의 三位一體論 全體를 通하여 一貫하여 強調하고 있는 '唯一하신 참 하나님'께서 三位로 役事하시고 救援하시는 일에 있어서 中心이 되고 있음을 看過

하고, 역시 '그리스도의 divinity'만을 強調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正確한 觀察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의 時代 風潮에 影響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그와 같은 傳統的 教會의 가르침을 確實히 堅持하는 Calvin의 立場을 "獨創성이 없다"고 거듭 評하는 일은 Calvin의 信仰의 중심을 깎아 내리는 것 밖에 무엇인가? Wendel의 다음과 같은 結語는 그의 立場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But although devoid of originality, this trinitarian doctrine constitutes an essential part of the theology of Calvin. It enables him, notably, to lay the emphasis that he did upon the divinity of Christ.

Calvin이 三位一體論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조점을 둔 점이 그리스도의 'divinity'가 아니고 'essence,' 즉 '하나님 自身'이었다는 것을 보면, Calvin에 있어서는 '基督論'에 있어서도 主要 關心은 '唯一하신 참 하나님'이시었고, '그리스도'는 仲保者로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 媒介하여 그를 '依支'하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Calvin의 三位一體論은 오늘의 總體的 不信의 時代, 背道의 時代에 있어서 特別히 必要한 가르침이라 하겠다.